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9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70.6원 (-33.6원)

KOSPI

5,872.34 (+377.56, +6.87%)

KOSDAQ

1,089.85 (+53.12, +5.12%)

국고채 10년 금리

3.628 (-0.12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산업재/소재	[CERAWeek 2026 참관기] Reshaping the Energy Map: 호르무즈, 그 이후 [윤재성]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ESG	중동사태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김상만]

기업분석

아이씨티케이	빠르면 올해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안 매출이 기대됩니다 [김홍식]
SK텔레콤	1Q 프리뷰 – 올해 시작이 좋네요 [김홍식]
세아제강	영업실적 개선 중 [박성봉]
현대제철	1Q26은 다소 부진, 2Q26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박성봉]
현대건설	예상대로 무난할 1분기, 개선되는 센티 [김승준]

산업분석

엔터테인먼트	형 만한 아우를 기다리며 [이기훈]
인터넷	결국 관심은 돌아옵니다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AI & 보안	앤스로픽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시사점 [김재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삼성증권, 한미약품, 엔씨소프트, CJ제일제당, LX인터내셔널, 리노공업, 케이엠더블유,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Overweight

산업재/소재

[CERAWeek 2026 참관기]
Reshaping the Energy Map: 호르무즈, 그 이후

[정유] 석유제품이 협상의 무기가 된다

원유 시장 정상화에도 불구 정제설비는 부족. 급증한 정제마진이 Shortage를 증명. 특히, 중동의 글로벌 비중 12%, 이란은 2.5%. 정상화에 시간 필요. 호주/미국은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와 4위. 미국의 항공유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68%로 압도적이며, 호주는 LNG 공급 보장을 카드로 석유제품 요청. Top Picks: 재고 확보 움직임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 예상. S-Oil(BUY, TP 13만원), SK이노베이션(BUY, TP 17만원)

[석유화학] 중동의 위협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까

중동 정상화 여부에 따라 일부 수혜 가능. 특히, 이란은 에틸렌의 글로벌 비중은 약 4%이며, 중동 내 2번째 규모. 정상화에 시간 필요. 중동의 에틸렌 Capa 2029년까지 약 20% 확대 계획. 사우디, 이란, UAE, 카타르 주도. 카타르 Ras Laffan 에너지 허브 피해로 공사/시운전 일정 리스크 발생. Top Picks: 중동의 설비 가동 및 증설 차질에 따른 반사수혜 가능한 대한유화(BUY, TP 20만원)

[상사/조선] 중동 외 지역 E&P 투자 활성화 기대

상사: 중동 에너지 수급이 정상화 이후에도 근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에너지 조달처 다변화 시도 이어질 전망. 동남아, 북미 등 비중동 에너지 원자재 자산 투자 기업에 관심 필요. 조선: 유가 레벨 과거 대비 높은 수준 유지될 가능성 높음.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 및 가스 개발 흐름 가속화될 수 있으며 해양플랜트 시황의 점진적 회복 기대. Top Picks: 포스코인터내셔널(BUY, TP 9만원), 삼성중공업(BUY, TP 3.6만원)

[ESS] 안보 프레임 속 새로운 기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생에너지+ESS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한 미국 보수 진영 내 태양광 우호 기류 부각. ESS 산업의 성장축이 친환경에서 안보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의 중국산 ESS 제재 강화가 가시화되는 중. 이에 따른 국내 셀 메이커들의 수혜 가능성 부각. Top Picks: LG에너지솔루션(BUY, TP 51.8만원), 삼성SDI(BUY, TP 46.9만원)

[원전/SMR] 빅테크-원전 연계 지속, 핵심광물로서 중요성 증가한 우라늄 주목

SMR은 기대했던 본 계약 지연으로 실망감 커진 상황. 내러티브가 실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시장은 냉정할 것. 우라늄은 핵심광물로서 탈러시아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 높아. SMR용으로 농축도를 높인 HALEU에 대한 정책 지원 지속될 것. Top Picks : 카메코(CCJ.US)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7일

S-Oil(010950)
BUY I TP 130,000원 I CP 114,800원

SK이노베이션(096770)
BUY I TP 170,000원 I CP 121,800원

한화솔루션(009830)
BUY I TP 46,000원(하향) I CP 37,150원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BUY I TP 90,000원 I CP 76,700원

삼성중공업(010140)
BUY I TP 36,000원 I CP 26,800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I TP 518,000원 I CP 408,500원

삼성SDI(006400)
BUY I TP 469,000원 I CP 456,700원

카메코(CCJ.US)
Not Rated I CP 110.23 USD

퍼스트솔라(FSLR.US)
Not Rated I CP 191.31 USD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4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중동사태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주간의 휴전은 휴전일 뿐 장기과제는 남아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4월 8일 오전)에 미국·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간 개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은 진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휴전이 의미 있는 종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은 아직 우세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와중에 중동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얼마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 준비가 필요한 핵심 변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유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와 산업에의 여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요 산업이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대다수의 업종이 원재료 비용 민감도가 높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중분류 업종 총제조비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7%에 달할 정도로 재료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토 및 경제 구조 상 당연한 현상이다.

세부 업종별로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자동차, 1차 금속, 전기장비, 음식료, 화학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들 상위권에 포진한 업종들 다수가 신용평가사들의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진단된 업종들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신용평가 3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산업군은 석유화학, 항공, 건설, 철강, 자동차, 가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재료비 비중의 높낮이가 대외충격에 따르는 부정적 여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은 향후 정책적 대응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차원이다.

한편, 원가부담 증가 관련 부정적 영향과 채권시장에의 영향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신용평가사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련 부정적 영향은 석유화학/항공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익성 저하, 잠재수요 감소 등과 같은 다소 간접적인 경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업종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채권 발행 대기업보다는 그 기업들의 협력사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기업들도 거래처의 자금 상황이 나빠지면 운전자금 부담 등이 커질 공산이 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영향이고 대부분의 경우 시장성 조달 및 대체자금조달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중동사태와 관련해서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산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평가사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업종은 정유/민자발전/방산을 꼽을 수 있다. 정유는 정제마진 개선 효과, 민자발전은 발전단가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CrediVille*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같은 긍정적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제마진의 경우 반짝 마진 개선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정제할 원유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것이고 민자발전의 경우에도 판매단가뿐만 아니라 원재료 도입 단가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 효과는 일시적/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원가부담 경감 효과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불가항력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기계약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조달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결국 원천적으로 우리 땅에서 석유, 가스가 솟아나지 않는 한(즉, 에너지 업스트림 업체가 있지 않는 한) 국내 산업이 관련 여파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중동사태의 부정적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진단된 산업군의 경우 그렇게 나쁠 것도 없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산업군 또한 딱히 좋을 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에너지 전환 및 발전에너지믹스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중동산 에너지 조달 비중이 높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불행 중 다행'(?)으로 탈 탄소가 선진국에 비해 늦은 관계로 아직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원자력발전과 함께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탈탄소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필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더욱 빨리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마음만 급하다고 일이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탈탄소정책의 추진은 그 과정에서 석탄을 더 많이 때가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략비축원으로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중요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동사태를 계기로 ESG 대응과 관련된 전략 또한 대대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04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아이씨티케이 (456010)

빠르면 올해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안 매출이 기대됩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000원
현재주가(4.08)	14,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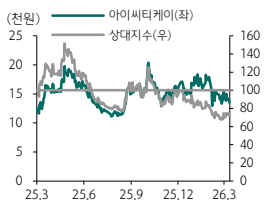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89.85
52주 최고/최저(원)	20,350/11,100
시가총액(십억원)	198.1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3,901.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62.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3
외국인지분율(%)	3.58
주요주주 지분율(%)	
이정원 외 16 인	27.5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7	29.6
영업이익(십억원)	5.2	8.7
순이익(십억원)	4.8	7.5
EPS(원)	345	539
BPS(원)	3,496	4,03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7	4.0	23.7	29.6
영업이익	(6.7)	(8.9)	5.2	8.7
세전이익	(5.8)	(6.7)	6.0	9.4
순이익	(5.8)	(6.7)	4.8	7.5
EPS	(467)	(499)	344	542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57.56
PER	(20.99)	(33.13)	39.16	24.85
PBR	3.02	5.23	3.84	3.33
EV/EBITDA	(18.32)	(27.99)	19.29	13.92
ROE	(22.20)	(15.36)	10.31	14.35
BPS	3,240	3,161	3,505	4,047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28,000원 유지

ICTK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8,000원을 유지한다. 1) 미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흡수되고 있으며, 2) 양자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으로 암호화폐 보안 무력화 시점이 더욱 빨라졌고, 3) 트럼프 행정부가 PQC와 제로트러스트를 포함하는 6개조 사이버보안 전략을 3/6일자로 발표하며 미국내 양자암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4) ICTK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보안 표준인 QSSN 생태계의 파트너사로서 미국 진출이 용이하여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흡수와 PQC 전환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 중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편입되는 가운데 양자컴퓨터로 인한 암호화폐 해킹 가능성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었고,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PQC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3/30일 미 노동부가 401K Plan(퇴직연금) 옵션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개정 규정안을 제안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401K에 포함하는 것을 경고 및 반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암호화폐가 확실히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었다는 방증이다. 4/1일에는 미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사용에 관한 GENIUS ACT 규정을 공개하며 제안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한편,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데 반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발전속도가 종래 예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구글에서는 기존 예상치의 10%에 불과한 큐빗수로 암호화폐 해킹이 가능하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보안이 전면 무력화되는 Q-DAY가 몇 년은 앞당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NIST 계획보다 빠른 2029년까진 PQC 전환을 완료하기로 공식화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3/6일 PQC와 제로트러스트를 골자로 담은 6개조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양자암호 산업 활성화될 것, 미국 진출 교두부가 있는 ICTK에 주목할 시점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미국 진출 교두부가 있는 ICTK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ICTK는 BTQ와 협력하여 양자암호 보안칩 QCIM을 개발 중이다. 그런데 QCIM은 스테이블 코인 보안 플랫폼 QSSN 생태계의 일부분이고, 미국 디지털 자산 및 결제 인프라의 PQC 전환을 위한 파일럿 모델로 선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QSSN은 글로벌 양자 표준화 기구 QuINSA의 표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결국 미국내 스테이블 코인 정착과 해킹 리스크와 결부되어 빠른 시일내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ICTK가 BTQ와 지분 협력관계이고, QSSN이 글로벌 표준인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ICTK가 스테이블 코인 보안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2026년 04월 0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1Q 프리뷰 – 올해 시작이 좋네요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0,000원
현재주가(4.08)	8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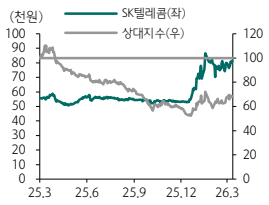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72.34
52주 최고/최저(원)	89,8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9,116.3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92.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0.7
외국인지분율(%)	39.05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733.8	18,083.3
영업이익(십억원)	1,864.0	1,977.3
순이익(십억원)	1,252.2	1,319.4
EPS(원)	5,726	6,117
BPS(원)	58,315	61,03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940.6	17,099.2	17,798.0	18,383.5
영업이익	1,823.4	1,073.2	1,887.2	1,983.6
세전이익	1,761.8	722.3	1,567.2	1,696.6
순이익	1,250.2	408.4	1,156.8	1,250.0
EPS	5,810	1,901	5,386	5,820
증감율	16.27	(67.28)	183.32	8.06
PER	9.50	28.14	16.52	15.29
PBR	1.01	0.89	1.41	1.36
EV/EBITDA	3.73	4.41	4.09	3.81
ROE	10.83	3.33	8.77	9.10
BPS	54,898	60,299	63,305	65,406
DPS	3,540	1,660	3,60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실적/배당 정상화 기대감 높아질 시점, 경쟁사대비 프리미엄 받을 것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및 4월 Top Pick으로 제시한다. SKT를 최선호종목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1) 2026년 4~5월엔 1분기 실적 흐름과 더불어 1분기 배당이 투자 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강한 실적 회복 및 배당 정상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2)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국내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과 배당 성장을 기록할 것인데 기배배당수익률 역시 현재 가장 높은 상황이며, 3) 2026년 말 이후 5G SA 도입이 본격화 된다고 봤을 때 이동통신비중이 높고 국책 AI 선정 가능성이 높으며 양자암호통신 도입 경험이 풍부한 SKT가 주가 프리미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 5,231억원 전망, 연간 연결 영업이익 1.9조원 육박 예상

2026년 1분기 SKT 연결 영업이익은 5,231억원(-8% YoY, +339% QoQ)이 예상된다. 전년동기비로는 연결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나 전분기대비로는 연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5,069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다. 2025년 2분기 영업정지 영향으로 이동전화매출액이 전년동기비 감소할 것이나 최근 5G 순증 가입자 확대 영향으로 전분기대비로는 이동전화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영업비용 역시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던 2025년 1분기대비로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나 전분기비로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인건비는 구조조정 효과로 2026년 1분기 YoY/QoQ 모두 감소가 예상되며 감가상각비 역시 정체가 예상된다. 탑라인 부진에 따른 YoY 연결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나 영업정지 여파 종료 이후 최근 흐름만 보면 실적 회복 양상이 뚜렷할 것이라 투자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실적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타날 것이라 2026년 연결 영업이익 1.9조원, 2024년 이상의 실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10만원이면 기배대당수익률 3.6% 수준, 5G SA 시대 감안 시 상반기 돌파 예상

현재 2026년 실적 기준 SKT 기대배당수익률은 4.0% 수준이다.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커 보이며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통신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10만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4월 말 1분기 DPS가 800~900원 사이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2026년 조기 배당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5월 초 발표될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진 상황이며 1분기 DPS 발표 이후 배당 수급이 유입될 것임을 감안하면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 본격 실적 시즌 돌입 전 SKT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2026년 4월 9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세아제강 (306200)

영업실적 개선 중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
현재주가(4.08)	141,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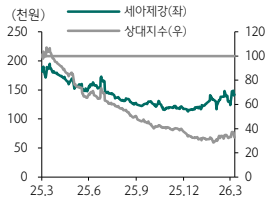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72.34
52주 최고/최저(원)	194,900/112,700
시가총액(십억원)	402.5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2,836.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2
외국인지분율(%)	3.14
주요주주 지분율(%)	
세아제강지주 외 8 인	63.5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20.2	1,763.2
영업이익(십억원)	57.1	63.3
순이익(십억원)	40.8	45.3
EPS(원)	14,385	15,954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809.4	1,484.8	1,738.2	1,786.1
영업이익	202.9	49.6	83.8	105.7
세전이익	246.9	58.7	88.1	109.6
순이익	137.1	30.0	61.2	73.1
EPS	48,324	10,577	21,574	25,768
증감율	(27.42)	(78.11)	103.97	19.44
PER	2.50	11.09	6.58	5.51
PBR	0.31	0.30	0.34	0.33
EV/EBITDA	1.39	6.94	5.87	4.88
ROE	12.99	2.68	5.34	6.11
BPS	393,136	396,485	412,559	432,827
DPS	7,000	5,500	5,500	5,5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Q26 판매 증가와 마진율 개선

2026년 1분기 세아제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28억원(YoY +16.9%, QoQ +23.2%)과 177억원(YoY -30.7%, QoQ +114.1%)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170억원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과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 등의 대외 변수에도 불구,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캐나다 LNG 프로젝트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아제강의 1분기 전체 강관 판매량은 24.0만톤(YoY +27.1%, QoQ +17.3%)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가시화되면서, 내수 부문은 기존 적자에서 벗어나 BEP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의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과 미국내 단가 인상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하이 싱글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 확대 기조 유지될 전망

최근 국내 열연 유통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세아제강도 4월부터 국내 강관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스프레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미국 내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분기대비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내수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아제강의 2분기 전체 강관 판매량은 24.0만톤(YoY +7.2%, QoQ -0.1%)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232억원(YoY +11.0%, QoQ +31.1%)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200,000원 유지

세아제강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00,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미국의 전세계 철강 50% 관세 부과 여파로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올해는 미달러 강세 기조와더불어 신규 프로젝트들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주가는 PBR 0.3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다. 최근 중동 지역내 안보 이슈로 송유관 신설 및 확장 프로젝트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아제강의 중동향 매출 확대를 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 미국내 리그 카운트(Rig Count, 신규 시추공 수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유정관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추후 유정관 수출 확대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2026년 4월 9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현대제철 (004020)

1Q26은 다소 부진, 2Q26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4.08)	37,8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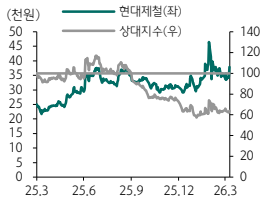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72.34
52주 최고/최저(원)	46,500/21,700
시가총액(십억원)	5,050.9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133,44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7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1.1
외국인지분율(%)	17.91
주요주주 지분율(%)	
기아 외 6 인	35.96
국민연금공단	9.8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693.8	24,207.7
영업이익(십억원)	622.4	831.9
순이익(십억원)	289.8	398.9
EPS(원)	2,231	3,229
BPS(원)	145,330	147,30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3,226.1	22,733.2	24,348.5	24,441.4
영업이익	159.5	219.2	564.3	775.5
세전이익	(59.5)	(43.2)	387.5	604.1
순이익	(11.6)	(6.9)	262.1	411.5
EPS	(87)	(52)	1,964	3,083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56.98
PER	(241.95)	(597.12)	19.27	12.28
PBR	0.15	0.21	0.26	0.25
EV/EBITDA	6.14	6.17	5.74	5.21
ROE	(0.06)	(0.04)	1.35	2.09
BPS	142,610	146,001	147,472	149,816
DPS	750	500	750	75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분기 판매는 증가하지만 고로와 전기로 모두 스프레드 축소 예상

2026년 1분기 현대제철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8조원(YoY +4.2%, QoQ +5.6%)과 455억원(YoY 흑.전, QoQ +5.1%)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1,194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판재류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회복되어 1분기 전체 철강 판매량은 431만톤(YoY +4.4%, QoQ +6.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다만 판재류 중에서 열연 및 후판 판매가 의미있게 증가한 반면, 냉연 판매는 전분기 수준이 유지되면서 제품 Mix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가 상승했지만 자동차강판을 비롯하여 주요 제품 가격 인하로 ASP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고로 스프레드는 대략 6만원/톤 축소될 전망이다. 4) 전기로의 경우에도 ASP가 상승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이를 상회하면서 스프레드가 대략 0.5만원/톤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그에 반해, 해외SSC와 현대스틸파이프 등의 국내 주요 자회사들의 이익은 전분기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제품 유통가격 상승세 전환, 2분기 스프레드 확대 전망

2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며 봉형강 중심의 판매량 증가로 현대제철의 전체 철강 판매는 447만톤(YoY -1.3%, QoQ +3.6%)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제강사들의 감산 및 출하제한, 그리고 수출 중심의 영업 전략 영향으로 철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며 철근 유통가격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했다. 주요 제강사들의 추가 가격 인상이 발표된 만큼 철근 가격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봉형강은 2분기 스프레드 확대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판재류의 경우, 원료탄 중심의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열연의 경우 수입산 규제 강화로 3월부터 유통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현대제철의 추가 가격 인상 계획과 더불어 아시아 주요 철강사들이 동시다발적인 가격 인상 기조를 고려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상회하는 판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2분기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1,618억원(YoY 59.0%, QoQ +256.0%)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현대제철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열연과 철근 중심으로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분기부터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현재 주가는 PBR 0.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다.

2026년 4월 9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현대건설 (000720)

예상대로 무난할 1분기, 개선되는 센티

BUY (유지)

목표주가(12M)	240,000원(상향)
현재주가(4.08)	188,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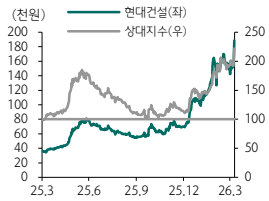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872.34
52주 최고/최저(원)	188,700/35,850
시가총액(십억원)	21,012.8
시가총액비중(%)	0.43
발행주식수(천주)	111,35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72.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8.2
외국인지분율(%)	24.32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5 인	34.92
국민연금공단	10.2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8,044.1	29,286.8
영업이익(십억원)	816.7	1,159.2
순이익(십억원)	662.7	935.9
EPS(원)	4,312	6,152
BPS(원)	77,750	83,76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670.3	31,062.9	27,685.7	28,345.0
영업이익	(1,263.4)	653.0	759.7	1,234.1
세전이익	(985.7)	646.8	836.6	1,358.9
순이익	(168.7)	373.1	452.6	865.4
EPS	(1,500)	3,320	4,027	7,699
증감율	적전	흑전	21.30	91.18
PER	(16.93)	21.11	38.71	20.25
PBR	0.36	0.95	2.03	1.86
EV/EBITDA	(2.18)	9.37	17.66	11.46
ROE	(2.09)	4.58	5.36	9.60
BPS	71,394	73,523	76,749	83,647
DPS	600	800	800	8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1Q26 추정: 매출액 6.9조원, 영업이익 1,613억원(OPM 2.3%)

1Q26 매출액 6.9조원(-7.7%yoy), 영업이익 1,613억원(-24.5%yoy)으로 추정하며, 컨센서스(1,601억원)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현대건설 별도에서 주택건축 GPM 5.5%, 토목은 8.0%, 플랜트는 2.5%로 추정했다. 주택은 작년 4분기 일회성 환입 효과가 있었고, 이를 제외했을 때의 수준으로 추정했다. 주택건축 마진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봤다. 플랜트에서 국내 현장의 원가율 조정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엔지니어링 GPM은 7.0%로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했다. 1분기 연결 수주는 약 5.1조원, 수주잔고는 92.8조원으로 추정한다. 미국 제철소(5.4조원)은 2분기로 이연됐다. 2분기 수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로 복정역세권(건축, 3.5조원), 미국제철소(플랜트 5.4조원), 펠리세이드SMR Ph1(플랜트), 현대ENG 카자흐스탄 천연가스(2조원), 현대ENG 베트남 가스처리(1조원) 등이 있다. 1분기 착공은 현대건설 0세대다. 미분양은 현대건설 약 3천세대이며, 그 중 75% 분양률 미만인 현장은 약 2,300세대다. 25년 신규물량 제외 시 약 1,300세대다.

원전, 중동, 국내 자재 수급 업데이트: 우려는 크지 않다

미국 페르미 마타도르는 4월말 FEED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어 FEED 종료 후 2분기 중 EPC 계약 구조를 협상할 계획이다. 본계약은 7월 중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 착공 목표다. 불가리아 대형원전은 ESC 계약이 5월말 종료로, 본계약 시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4분기 중 본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ESC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계약 서명 즉시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 홀텍 펠리세이드 SMR은 2분기 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구간별로 나눠서 금액을 수주할 것으로 추정한다. 중동 프로젝트 현장들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쟁 후 5월말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기업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다. 우회로를 통한 자재 수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들은 발주처와의 협의(클레임오더)할 생각이다. 국내 자재 수급은 나프타 수급 등에 따른 영향은 있지만 1~2%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40,000원으로 상향

현대건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130,000원에서 240,000원으로 84.6%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60.0배를 적용했다. 2분기 센티 개선에 따라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적용했다. 3월 한 달간 현대건설 관련 원전 뉴스의 부재, 타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익스포저로 주가 상승이 더뎠다. 하지만 2분기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따른 우려 해소,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 2분기 원전 계약 등 센티가 개선될 수 있기에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2026년 4월 9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엔터테인먼트

형 만한 아우를 기다리며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하이브(352820)
BUY I TP 400,000원(하향) I CP 260,500원

에스엠(041510)
BUY I TP 140,000원(하향) I CP 87,000원

JYP Ent.(035900)
BUY I TP 90,000원(하향) I CP 61,2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BUY I TP 80,000원(하향) I CP 51,300원

*CP 2026년 4월 8일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목표 P/E 하향으로 목표주가 하향하나 다시 역사적 저점 가격

하이브가 뉴진스 이슈 때도 저점으로 작용했던 예상 P/E 30배 구간도 하회하면서 나머지 3사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동반 하향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BTS의 성과에 대한 선 반영 이슈가 크지만, 모든 기획사가 역사적 저점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BTS를 포함한 2~3세대에 이어 4세대가 북미/유럽 등에서의 글로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 자체로는 지속적인 신인 그룹 데뷔와 가속화된 수익화, 그리고 MD등 2차 판권의 구조적 성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이나, 단기 디레이팅 혹은 기간 조정 가능성을 반영해 목표 P/E를 약 10% 하향하며 목표주가도 10% 내외로 하향한다. 최근 주가 급락에도 1) 5세대 중 가장 좋은 IP를 보유하고 있고 2) 미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하이브기에 하이브에 대한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SM 부합, 하이브/JYP/YG 하회

1분기 하이브/SM/JYP/YG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401억원(+85%)/367억원(+13%)/230억원(+17%)/185억원(+94%)으로 SM은 컨센서스에 부합, 하이브/JYP/YG는 하회할 것이다. 1분기는 앨범보다 투어가 많은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3월 BTS의 컴백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대부분 2분기에 집중된 영향도 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며 BTS와 빅뱅의 컴백 등으로 모든 기획사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신인 그룹들의 데뷔는 하이브를 제외하면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상 최대 실적 선 반영 이후 다음을 기다리며

BTS와 빅뱅의 동반 컴백 및 월드 투어로 2026년은 사상 최대인 합산 영업이익 1조원에 근접할 것이며, 지난 10년 간 약 10배 상승한 것이다. BTS,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등은 북미/유럽 등의 가파른 팬덤 확장으로 투어 규모가 150~500만명, 투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도 넘어가고 있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월드 투어는 4~6개월 전부터 일정을 발표하고, 이를 시장이 단기 수주 형태로 선 반영하면서 막상 실적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어쨌든, 지난 2년간 2~3세대의 역대급 월드투어를 반영 했고 시장은 이제 4세대 이후의 성장을 반영하고 싶어하는데, 전술한 2~3세대 그룹들과 달리 100만명 이상 투어가 가능한 아티스트는 아직 제한적이다. 50~70만명 내외의 연간 투어가 가능한 아티스트들이 충분하기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며, 5세대의 앨범 성과(코르티스, 라이즈 등)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2026년 4월 9일 | Earnings Preview

인터넷

결국 관심은 돌아옵니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8일

NAVER (035420)
BUY | TP 350,000원 | CP 201,500원

카카오 (035720)
BUY | TP 75,000원 | CP 47.850원

1분기, 시작이 좋다

1분기 광고/커머스 업황은 견조하다. 광고는 상대적 비수기임에도 모바일 광고를 중심으로는 +5%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커머스는 지난 12월 쿠팡 사태로 이커머스 기업 전반에 수혜가 예상된다. 1~2월 국내 온라인 커머스 거래액(GMV)은 전년 대비 +7.3% 성장하며 4분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다. NAVER/카카오 모두 이를 상회하는 실적 기대한다. 광고/커머스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시장 기대는 계속해서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컨센서스 NAVER/카카오 모두 부합 전망

1분기 영업이익은 NAVER/카카오 5,646억원/1,739억원으로 전망한다. 1분기 NAVER(SA, DA, 커머스 광고)/카카오(톡비즈 광고)의 광고 성장률은 7%/12%로 추정한다. NAVER는 AI 브리핑 도입, 지면 최적화로 광고 성장률 안정기이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개편 효과가 지난 4분기에 이어 나타나고 있다. 1분기 NAVER의 중개 및 판매 매출 성장은 +52.6%, 카카오의 톡비즈 거래형 매출 성장은 +7.3%로 예상한다. 쿠팡 사태로 인한 수혜 강도는 상대적으로 NAVER가 높다. NAVER는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반영되었으며 포시마크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기반의 견고한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소외의 이유, 하반기 경쟁력은 부각될 것

양 사는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내수 중심의 광고/커머스의 견고한 성장에 기인한 이익 증가에도 관심도는 저조하다.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해석한다. 1) 글로벌 AI LLM 사업자들의 높은 성장률, 사업 성과 대비 느린 AI 침투 속도, 2) 글로벌 소프트웨어사들의 멀티플 하락, 3)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지연이다. NAVER/카카오 모두 빠르게 변하는 AI 산업 구도에서 이익 안정성을 우선하는 기존 성장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개방형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에 도입 속도, 침투율도 더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좋은 실적에 반해 시장의 우려는 점점 커져 괴리가 확대되는 이유다. 결국 현재 방식으로 국내 사용자들에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트래픽을 확보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켜야만 불식시킬 수 있다. 국내 로컬 서비스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NAVER는 2분기 AI 탭을 출시하여 에이전트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고 카카오는 카나나, 카카오 툴즈에 외부 서비스를 탑재하여 사용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분기를 넘어 하반기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와 별개로 하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RWA 시장은 개화 예정이다. NAVER는 두나무 인수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뱅크를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며 대비하고 있다. 사용자 최접점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효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기에 글로벌 시장의 개화, 디지털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의 소외는 더욱 큰 관심으로 돌아올 것이라 전망한다.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Global Issue

2026년 4월 8일 | 산업분석

AI & 보안

앤스로픽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시사점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PANW, CRWD 주요 파트너사로 참여

앤스로픽의 미공개 프론티어 모델 '클로드 미토스' 성능이 강력하여 해커와 같은 공격자에게 악용될 경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는 내부 문서 유출은 사이버보안 종목에 대한 AI 관련 투자자 우려를 한층 심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4월 7일 앤스로픽은 클로드 미토스를 방어 목적으로 우선 활용해 세계 핵심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점을 탐지, 보완하고자 주요 테크 기업 12개로 구성된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론칭했다. 참여 기업이 미토스 프리뷰를 먼저 적용하고 앤스로픽이 학습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참여 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구조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 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12개의 파트너사에 팔로알토(PANW)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가 포함되었다.

사이버보안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

1)AI 기업이 기존 사이버보안 사업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핵심 보안 통합 사업자를 중심으로 AI 기업과 파트너십이 결성되고, 보안 통합 플랫폼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LLM 기반 보안이 기존 보안 사업자 대비 제공하지 못하는 요소(①런타임 방어, ②99.9% 이상의 정확도, ③공격과 방어의 역할 분리, ④비용 통제)에 주목하며, LLM과 보안업계의 대립이 아니라 AI를 방어 솔루션 안에 누가 가장 빠르게 통합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보안 영역에서는 기존 통합 사업자의 해자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판단된다. 2)AI 진화는 공격 기술 발전과 가속화를 초래하기에 기업의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이며 전체 IT 지출에서 보안 비중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 수요 상승 속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AI 보안 포트폴리오를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CRWD와 PANW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3)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한 12개 기업의 면면을 보면 현시대 가장 대표적인 테크 리더들이다. PANW와 CRWD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두 기업이 AI 보안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CEO 장내매수 & 자사주 매입 한도 확대, AI 기반 성장에 대한 자신감 시사

AI로 인한 경쟁 논리가 상존하기에 AI 신모델이나 보안 툴에 대한 발표 자체가 사이버보안 주식의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는 헤드라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1)AI 도입 가속화로 주력 분야(PANW 네트워크 보안, CRWD 앤드포인트 보안) 수요 확대, 2) 통합 플랫폼 사업자의 구조적 해자 유효, 3)AI 보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고려하면 CRWD와 PANW가 보안 시장 확대 국면에서 점유율 상승을 통해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CRWD의 자사주매입 한도 확대와 PANW CEO의 장내매수는 양사가 현재 주가 수준을 중장기 성장 잠재력 대비 매력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Analyst 김재입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6	186,200	210,500	13.05%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4/6	145,500	156,000	7.22%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4/6	93,400	104,400	11.78%	• HNWI 고객수 390만명(YoY +48.9%), 고객자산 432조원(YoY +42.8%) 수준으로 확대 • 발행어음 인가 취득 시 IB와 리테일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한미약품 (128940.KS)	4/6	507,000	493,500	-2.66%	• 2026년 상반기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유효 • 하반기 국산 비만치료제 출시와 연간 1건 이상의 기술이전 가이던스를 제시
엔씨소프트 (036570.KS)	4/6	211,500	218,000	3.07%	• JustPlay 인수로 글로벌 캐주얼 게임 라인업과 AdTech 역량을 내재화 • 하반기 캐주얼 장르 스튜디오에 대한 추가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
CJ제일제당 (097950.KS)	4/6	226,000	229,000	1.33%	• 하반기 유가·곡물가 상승과 중국 돈가 회복에 따른 라이신·핵산 수요 개선 기대 • 4Q25 실적 발표에서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피력
리노공업 (058470.KQ)	4/6	110,400	116,800	5.80%	• AI·고성능 반도체 확대로 R&D용 테스트 소켓과 핀 수요 꾸준히 증가 •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차량용 SoC·AR/VR 등 전방 시장 확장 맞물려
케이엠더블유 (032500.KQ)	4/6	28,500	26,550	-6.84%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6	14,420	15,040	4.30%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69%	-6.36%p	+57.49%	+20.1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알테오젠 (196170.KQ)	4/6	365,500	374,500	2.46%	• 4월 J-code 발효에 따른 키트루다 Qlex 처방 확대, 추가 본계약 가능성 • Dapirolizumab pegol 및 Felzartamab 추정하나, LEQEMBI로도 확대 가능
케이엠더블유 (032500.KQ)	4/6	28,500	26,550	-6.84%	• 미국 주파수 경매 개시와 AT&T·버라이즌의 CAPEX 확대 기대 본격화 • 삼성전자·에릭슨향 공급 가능성 확대를 통한 2027년 실적 급증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10,500	25.9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06,000	2.92%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1,200	10.24%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6,000	9.94%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2,500	9.02%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90,400	15.60%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3,400	2.66%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59,500	11.94%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47,000	18.23%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4/1	128,000	130,000	1.56%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91%	-7.84%p	+31.32%	-6.0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8,400	-3.9%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280	-5.8%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5,460	0.4%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290	56.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6.04	0.3%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60.16	31.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9.90	17.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3.89	10.5%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5	4.6	4.7	4.8	4.9	4.10	4.11
		▪ 중국 3월 외환보유액 ($3,390.95B, 이전치 $3,427.8B) ▪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1.4% 이전치 0.0%)	▪ 한국 2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23,193m/$23,364m, $13,259m/$15,173m) ▪ 일본 2월 BoP 경상수지 (¥3,932.7b, 이전치 ¥941.6b) ▪ 미국 3월 FOMC 회의록	▪ 미국 4월 1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이전치 2.5%) ▪ 미국 3월 CPI (E--, 이전치 2.40%) ▪ 중국 3월 CPI (E--, 이전치 1.30%)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광공업생산 (최종) (E--/--, 1월 -2.1%/0.3%) ▪ 중국 3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전년동월대비) (E $111b/13%/15% 2월 $90.98b/39.6%/13.8%) ▪ 미국 3월 전월대비 PPI 최종수요 (E--, 2월 0.7%)	▪ 한국 3월 실업률(계절조정) (E--, 2월 2.9%) ▪ 일본 2월 전월대비/전년대비 핵심기계수주 (E --/--, 1월 -5.5%/13.7%)	▪ 중국 1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E 4.8%, 이전치 4.5%)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최종) (E --/--, 1.2%/2.5%) ▪ 미국 4월 2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